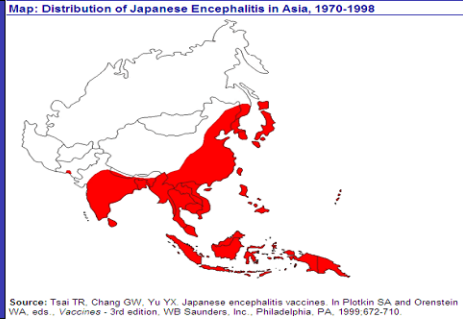


『일본뇌염 경보발령』에 따른

질병정보 및 예방요령 안내



① 정 의

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 모기의 흡혈로 감염되는 신경친화성 급성전염병으로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, 후유증의 발생이 높은 질병입니다.

② 역 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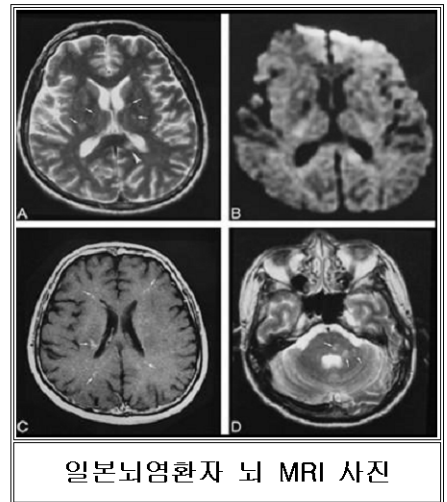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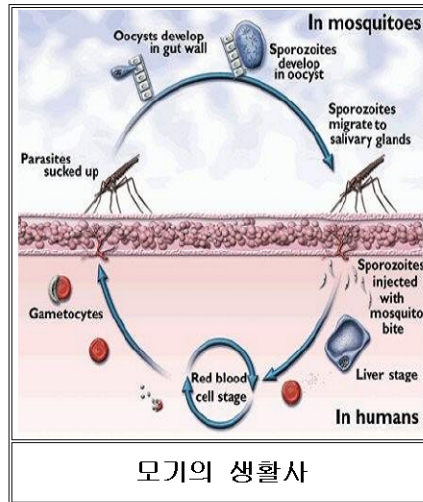
○ **병원체** : 일본뇌염 바이러스

○ 전파방법

일본뇌염모기(작은 빨간집 모기)가 산란기에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후 사람을 흡혈하여 전염시킵니다.

○ **잠복기간** : 감염모기에 물린 후 7 ~ 20일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.

○ **위험군** : 전 연령층(15세이하 70 ~ 80%)



③ 증 상

○ **초기** : 두통, 발열,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

○ **극기** : 고열, 혼수, 마비

○ **회복기** : 언어장애, 판단능력저하,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 발현

○ **치명률** : 5 ~ 10%(후유증 발현율 : 20 ~ 30%)

4 치료

특수요법이 없는 반면에 호흡장애, 순환장애, 세균감염 등이 사망요인이 되므로 대증요법이 요망됩니다.

5 예방

- **아동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필히 맞아야 함**
 - ▶ 기초접종(3회)
 - 1차 생후 12 ~ 24개월 / 2차(1차 접종 후 7 ~ 14일 사이)
 - 3차(2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후)
 - ▶ 추가접종(2회) : 4차(만 6세), 5차(만 12세)
- **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 강화 및 모기서식처를 제거해야 합니다.**
- **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야간에 외출을 삼가고, 긴소매 · 긴바지를 착용하며 모기기피제를 바르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.**

6 기타사항

- **모든 작은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에 걸리나요?**
 - ▶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, 극히 일부 모기만이 일본뇌염바이러스가 있습니다.
- **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?**
 - ▶ 일본뇌염은 사람간에 전파되지 않습니다.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작은 빨간집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.
- **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?**
 - ▶ 주로 논과 연못, 관개수로, 미나리깡,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므로, 거주지 주변에 물웅덩이가 있을 경우 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.

일본뇌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안구보건소 ☎ 228 - 5654